

사·부·대·중

무주상보시



이규인 한국석불선인회

금년 봄,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느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였다. 1개월 전에 미리 현지를 찾아 필요한 보시품목을 정하고 50여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현지에 도착했다.

스님의 안내를 받아 법회를 보고,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생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발걸음을 옮기며 복지시설의 이곳 저곳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침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깎아 주는 학생, 중증환자를 마사지해주는 학생, 노래를 가르치는 학생 등 최선으로 원생들을 보살피는 모습은 마치 보살의 화현 같았다.

안내하는 스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체험이었다. 그런데 시설 견학이 끝난 후, 보시품을 운동장 가운데 내려놓자마자 원생들이 달려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따금씩 기념사진 찍을 때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안내하는 스님을 쳐다보니 "자, 기념사진 찍으셔야죠" 하신다.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스님께 "저희는 기념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보시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은 성의지만 크게 받아 주십시오" 하니 이번에는 도리어 스님이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보신다. 보시품을 참고로 운반하고정이 들어 손을 놓지 않는 원생들을 달래며 귀경길에 올랐다.

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생색내기를 좋아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어왔으면 천진난만한 원생들이 보시품을 보자마자 사적인 대열로 모일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불교에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보시되는 물건 등 세 가지가 모두 정정해야 진정한 보시라고 한다. 양무제가 자신의 불사공덕을 달마에게 물은 즉 "무(無)공덕"이라고 대답한 것도 상(相)있는 보시를 경계함이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온다. 평소에는 보양제 만지가 쌓였을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의 문지방도 적선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사진 한 장 찍자고 노인분들, 지적장애인들을 추운 복도나 운동장으로 내몰아 추운 겨울을 더 춥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당연한 몫이기 때문이다.

e 화엄세상 핸드폰 열면 불교정보 '가득'

현대불교, 무선인터넷 서비스 019·017·011 개통... 016·018 12월

조계사 열린 강좌에 참석하고 싶어하던 박신철 씨(35, 상업). 어느 곳에 문의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핸드폰 종교정보 서비스의 불교코너를 두드렸다. 사할 안에 접속해 조계사를 검색한 후 연락처를 찾아 조계사를 직접 방문, 열린 강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걸어나며 내 손안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불교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 현대불교신문사가 독점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를 클릭해 불교정보의 화엄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011, 019, 017에 이어 12월 1일부터 016, 018도 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7개 메뉴 30여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에서는 법회 안내는 물론 불교계 곳곳의 일한 뉴스들이 가득하다. 불교책마당에 들어가면 요즘 불자들이 선호하는 책에서부터 엄선된 밀리언셀러, 베스트셀러 등을 검색할 수 있어 불교전문 서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산사에서 수행 중인 원로스님들의 감수같은 법문도 핸드폰으로 접속해 읽을 수 있다. 해암 종정스님을 비롯해 불충림방장 서용스님, 봉암사 조실 진제스님, 동국영역원장 월운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등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는 큰스님들의 생활법문이 핸드



사할·인물 정보 검색 큰스님 법문도 본다 불교카페 'N세대'용

폰으로 불자들 곁으로 다가온다.

불교문화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한다. 산사에서 열리는 음악회 소식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연극 영화 등 다양한 공연·전시 정보가 곧바로 제공된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의문을 바로바로 해소시켜주는 교리문답 코너도 눈길을 끈다.

불교경전이나 교리서들을 읽다 궁금한 용어가 나왔을 때 핸드폰으로 접속해 불교용어를 검색하면 된다. 500여개의 용어가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매주 60여개의 용어가 업로드 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사할안

내 코너에서는 지역별 이목별 검색은 물론 전통사찰 검색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계시관과 대화방, 금주의 법구와 문제가 제공되는 불교카페는 불자들이 가장 선호할만한 콘텐츠. 사할 학회회 청년회 등 각 단체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접속방법=각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종교코너를 찾아가면 본사가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를 볼 수 있다. 019의 경우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z-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로 가면 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법문을 듣고 난 후 생긴 의문도 핸드폰 불교정보서비스에 접속해 해소할 수 있다

메뉴구성표
1. 불교뉴스
2. 불교문화
3. 불교인물
4. 불교사찰
5. 불교단체
6. 불교법문
7. 불교교리
8. 불교역사
9. 불교여행
10. 불교음악
11. 불교영화
12. 불교미술
13. 불교사진
14. 불교서적
15. 불교잡지
16. 불교신문
17. 불교방송
18. 불교영상
19. 불교음성
20. 불교영상
21. 불교영상
22. 불교영상
23. 불교영상
24. 불교영상
25. 불교영상
26. 불교영상
27. 불교영상
28. 불교영상
29. 불교영상
30. 불교영상

"다양하고 유익한 불교 콘텐츠 구축"

불교정보 WAP 기술개발 프리즘社 나인석대표

"핸드폰을 통한 WAP 서비스에서 불교코너는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콘텐츠 구성보다는 스님과의 일대일 상담 코너와 같이 불자들이 현실적인 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재미보다는 보다 양질의 정보로 불자들을 사로잡아야 불교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제휴, 무선불교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리즘 정보시스템 나인석 대표는 불교서비스의 나아가 방향을 이렇게 지적한다. 불교 WAP 서비스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탈세속적이고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도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모바일이라는 첨단 정보시스템과 불교의 결합으로 불교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인석대표의 생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교정보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채팅, 커뮤니티 등의 전용 서버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인석 대표는 "앞으로 무선인터넷 뿐만 아니라 유선인터넷 상의 불교포털 사이트와의 연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유무선 통합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부장>

"...비(碑)가 어디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았고, 또 알게되어 탁본을 부탁하면 잘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관심없는 사람도 있고... 탁본을 어렵게 구해 그것을 일고화하는 작업에서 한 자라도 잘못 될까봐 직접 비문 글자를 일일이 확인해 원고에 옮겼어요. 교정만도 10번 이상 봤고..."

지난 7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1600년 한국불교역대고승비문 중간 회향법회'에서 편저자인 지관스님(가산불교연구원장)이 하신 인사말중 일부분이다. 지나가듯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는 말이다.

98년과 지난 해 가을, 연이은 조계종 분류로 불교의 위상과 체면은 정말 달이 아니게 구겨졌다. "또 싸워?" 냉소적인 이 한마디로 불교에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올 가을을 앞두고 또 안좋은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한 불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불교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성보문

"스님들 애쓰셨습니다."

화재연구원이 10년간의 작업을 거쳐 한국의 불화 20권을 1차로 완간해 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할의 불화가 도난당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몰랐던 것이 현실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사할의 탕화 보존이라는 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화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또 내달 6일이면 수년간에 걸쳐 진행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 마무리되어 디지털대장경시대가 열린다. 이 모두는 그 자체가 어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대작불사'이기도 하지만 불교, 나아가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킬 연구가 활발하게 해줄 소중한 기초자료들이 완성했다는 점에서 이 훌륭한 대작불사를 이끌어온 지관스님, 종림스님, 범하스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재정, 인력 등 뭐 하나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오로지 원력 하나로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회향까지 이끄신 스님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정 부에서 문화훈장으로도 보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용어설명

-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의 약자로 무선인터넷을 지칭하는 말이다. 무선인터넷은 이동전화나 PDA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 환경의 여러 제약(시간, 공간)을 극복하고자 탄생한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 및 통신 서비스, 문자정보 서비스, 전자 상거래 서비스 등이 있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의 약자이다. 개인 정보관리기라고도 한다. PDA를 쉽게 설명하면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PDA는 자체적인 OS(Operating System)를 가질 뿐만 아니라 CPU, RAM, ROM, I/O Device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물론 전자수첩 등과 달리 사용자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주어지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IMT 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 미래 공공 육상 이동통신 시스템)를 부르기 쉽도록 명명한 것이다. 지구촌 어디서나 원하는 상채와 음성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 공공 육상 휴대 통신을 말한다. 셀룰러 이동전화, 무선전화, 이동데이터, 위성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한 개념으로 2002년 초반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8,000원 (지급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2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크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북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중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관학문당(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49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